



## 海外業界動向

### 미국 경제, 향후 3~5년간 저성장

美國銀行協會의 한 관계자는 최근 어느 강연회에서 「美은행업계의 퇴조에 의해 미국 경제는 금후 3~5년간 저성장을 나타낼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또 그는 최근 지역경제의 혼미와 소규모의 경기후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하고 「연간 성장률은 2.5%로 보아야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同氏에 의하면 은행용자는 최근 급감하고 있다. 1985년부터 1990년에 걸친 용자의 연평균 신장률 5.5%이었으나, '90년에는 2.5%로 저하하여 금년 상반기는 개인대출이 연율 2.5%감소, 기업용자가 연율 5.5%감소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었다.

최근 美정부가 표방한 은행 신용위기 완화책에 대하여 그는 단기, 장기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 美, DEC社 소련·동구 진출 본격화

DEC는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판매 자회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동사의 소련·동구 비즈니스에 한층 더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新販社 「DEC 폴란드」는 종업원 30명으로 다

음달에 발족, 서비스 업, 官公廳, 제조업용의 각종 정보기기 판매와 그 해결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소련에서도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멀지 않아 자회사로 함으로써 최근 소련 정부의 승인을 얻었다.

DEC는 동구로의 직접투자를 작년 2월, 부다페스트에 설립한 합작의 DEC 형거리社가 최초인데 반년후 경영진을 교체, 엔지니어의 채용 등으로 체계를 정비한 후 완전 자회사로 만들었다.

현재 동판사는 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체코정부의 총액 750만불 및 정보시스템의 Infrastructure망 프로젝트의 건설로 대응하고 있다. DEC는 소련·동구에 대하여 「수출가능한 상품에서 판매체제조성을 개시」할려 하고 있다.

또한 DEC는 최근 구주에서도 「Open Advantage」 캠페인을 개시하였다.

동 캠페인은 Open System의 생각을 일보 추진하고 유저는 종전의 나라와 제품에이스가 좁은 범위에서의 전산기 이용에서 국가와 영역을 초월하여 네트워크 조성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DEC가 그 솔루션을 제공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 캠페인에서는 내년말의 시장통합에 대비하여 구주의 통신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대

응해 나아갈 계획이다.

單位：本數百万本  
金額=百万円

**半導體 製造裝置의 경쟁력 제하, 美社의 노력부족이 원인**

美 國際貿易委員會(ITC)는 최근 반도체 제조 장치·재료분야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하여 경쟁력을 상실한 것은 메이커의 서비스 노력과 고객과의 협력태세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의 반도체 제조장치시장은 1990년 시점에서 93억달러, 반도체용 웨이퍼(基板) 등의 재료시장은 92억달러의 규모를 나타냈다. 이 중 미국기업의 점유율은 제조장치에서 45%로 일본의 44%를 간신히 상회하고 있지만, '89년의 미국 61%, 일본의 30%에 비교하면 미국의 경쟁력 상실은 확실하다.

보고서는 미국업체가 일본에게 추격당했는데, 일부에서 역전된 이유로써 ① 일본메이커는 고객인 반도체 메이커에 대하여 요원훈련과 보수면에서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② 일본의 제조장치·재료 메이커와 반도체 메이커의 협력체계는 미국보다 긴밀한데 차세대의 제품개발에 고객의 의견이 반영된 것 등을 들었다.

또한 일본메이커는 미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인 점도 요인으로 지적 미국메이커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에서 일본기업을 배워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美, Audio Record 出荷, CD 싱글이 급신장**

美 레코딩産業協會(RIAA)는 최근 '9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미국에서 Audio Record(CD, 음향테이프 등)의 업계 출하수량과 금액을 발표했다.

작년동기와 비교하면 출하수는 마이너스 11.08%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베이스에서는 34억 8,450만불에서 34억 9,080만불과 작

	'90년1~6월		'91년1~6월		전년대비(%)	
	출하본수	출하금액	출하본수	출하금액	출하본수	출하금액
디스크 싱글	14.36	56.52	11.40	31.18	-20.61%	-44.83%
카세트 싱글	45.58	133.45	33.61	108.56	-26.26%	-18.65%
CD 싱글	0.12	0.70	2.39	13.56	1,891.67%	1,837.14%
LP/EP	5.62	38.82	2.09	12.46	-62.81%	-67.90%
C D	132.08	1,522.73	153.86	1,833.79	16.49%	24.37%
카세트	222.27	1,657.65	170.41	1,371.20	-23.33%	-17.28%
뮤직 비디오	4.05	74.63	3.32	60.12	-18.02%	-19.44%
합계	424.08	3,484.50	377.08	3,490.87	-11.08%	0.18%

(RIAA)

년과 동일한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7항중에서 신장하고 있는 것은 CD 싱글과 CD뿐이다. 특히 CD싱글은 출하매수에서는 1891.67%증가, 금액에서도 1837.14%증가로 대폭적인 신장을 보이고 있어 다른 低迷한 분야를 지탱하고 있다. 싱글 이외의 CD도 매수 메이스에서 1억 5,386만매, 금액에서 18억 9,379만불의 매상고를 나타내어 각각 16.49%, 24.37%로 순조롭게 신장하고 있다.

2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5항목은 일제히 부진을 보였다. 특히 LP, 디스크 싱글은 크게 후퇴되었다.

**일본, 하이비전 추진협회 설립**

일본 郵政省은 최근 사단법인 Hi-Vision 추진협회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동협회는 "Hi-Vision의 날"인 11월 25일부터 방송위성3호b(BS-3b)를 이용하여 하루 8시간의 Hi-Vision 시험방송을 함과 함께 폐쇄회로 부문 등 Hi-Vision 통신의 응용분야의 확대추진과 Hi-Vision에 대한 지원,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Hi-Vision 시험방송은 약 3년간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협회는 시험방송 종료후는 Hi-Vision 통신분야의 이용확대와 하이비전 전반의 보급 촉진 등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의 회원수는 107社에서 머지않아 1

20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가전 양판점업계 이익 감소

베스트電器는 '92년 2월기 중간결산에서 중간기에서는 9기만에 증수감익을 나타냈다. 호경기가 계속된 일본 경제도 개인소비, 민간설비투자과 함께 신장률이 둔화되어 특히 대형가전양판점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워드프로세서, 전화기 등 정보기기,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화, 고급화와 에어컨의 조기판매에 힘을 기울여 전년을 상회하였으나, VTR, 오디오는 작년에 이어서 부진을 보여서 컬러TV도 6년만에 전년 실적을 하회하였다.

중간기의 매출액은 1,045억 5,500만원(전년 동기대비 1.8% 증), 영업이익 30억 6,500만원(동 12.1% 감), 경상이익 71억 4,200만원(동 14.9% 감), 중간이익 39억 400만원(동 8.6% 감)을 나타냈다.

Tenant 매출(퍼스컴·사무기기 제외) 18억 1,800억원(동 3.3% 증), 상사매출 4억 8,300억원(동 6.2% 증)을 나타냈다.

품목별 매출실적('92년 2월말 중간결산)

단위: 억원, %

품 목	매 출(전년동기대비)
컬러TV	138.6 (▲ 1.1)
VTR	87.5 (▲ 13.1)
테이프레코더 라디오	55.8 (▲ 0.8)
조명기구	26.3 ( 12.3)
스테레오 오디오	69.1 (▲ 10.2)
주방기구	32.8 (▲ 4.6)
냉장고·전자렌지	107.8 ( 7.5)
세탁기·크리너	69 ( 1.5)
에어컨	165.7 ( 8.1)
기타 냉난방기구	33.2 ( 6.1)
퍼스컴·사무기기	110.9 ( 9.0)
기 타	
-수리·공사	18.2 ( 9.3)
-AV소프트·부속품	27.9 (▲ 2.3)
-기 타	6.5 (▲ 29.8)

주: ( )내는 신장률로서 ▲는 감소한 실적임.

12전기제품의 항목중에서 TV, VTR, 테이프 레코더, 라디오, 스테레오 오디오 등 AV가 일제히 전년동기의 실적을 하회하여 關房器具를 첨가한 5항목이 침체상태를 보였다.

하반기에 국내경기가 불투명하여 가전판매업계의 수요가 침체상태를 보여서 상반기 이상의 치열한 경쟁을 예상하고 있다.

### 일본 제조업의 설비투자 둔화

일본에서는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양적인 변화는 물론 질적인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설비투자의 내용은 투자동기별로 ① 능력 증대, ② 갱신유지보수, ③ 합리화·성력화, ④ 성에너지, ⑤ 공해·안전대책, ⑥ 연구개발, ⑦ 기타의 7항목으로 나누어진다.

최근 日機連(日本機械工業聯合會)가 정리한 「投資動機別 投資構成比」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것에 의하면 평성2년도 실적에 비교하여 평성3년도 계획(8월 조사시점)의 구성비는 「능력증대」의 항목을 작업종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그것에 대하여 「合理化·省力化」는 전기기계는 마이너스를 나타냈지만, 기계공업, 일반기계, 수송기계, 정밀기계 모두 크게 향상되었다.

다음으로 작업종별의 평성3년도의 투자동기별 구성비를 나타냈다.

일본 제조업의 설비투자 동향(1991년)

단위: %

구 분	기계공업	일반기계	전기기계	수송기계	정밀기계
능력증대	30.8(32.7)	31.8(33.4)	41.7(44.5)	21.4(22.1)	22.7(25.0)
갱신유지보수	11.7(10.9)	15.2(14.8)	6.6(6.1)	13.6(12.8)	11.5(10.6)
합리화·省力化	17.4(16.0)	24.9(21.3)	13.9(14.7)	14.5(13.5)	25.9(18.5)
성에너지	2.4(2.7)	0.3(0.3)	- (0.1)	5.6(6.4)	5.0(4.1)
공해·안전대책	3.1(3.3)	10.1(2.0)	0.7(0.5)	6.3(6.7)	4.0(3.3)
연구개발	15.3(15.5)	10.1(9.3)	23.8(21.3)	11.4(13.5)	18.6(26.2)
기 타	19.3(15.5)	16.2(9.3)	13.3(12.9)	27.1(13.5)	

주: ( )내는 숫자는 1990년의 실적임.

## 일본, VTR헤드 신재료 및 가공법 개발

일본의 VTR의 영상용 자기 Head용으로 종전에는 웨라이트材가 사용되었으나, 同 Head의 저감의 출력부족, 摺動 Noise의 발생을 신소재, 신가공법으로 해결하고자 각사가 대응한 것이다.

松下電器는 일찍부터 積層型의 아몰퍼스 Head를 개발 사용하였으나, 신제품은 五積層型의 아몰퍼스 Head를 채용함으로써 3배 Mode用的 19미크론 Head를 개발하고 있다.

아몰퍼스 Head는 日立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업계에서 최초로 센더스트合金 Head를 개발하여 채용한 것이 三洋電機이다. 당초는 飽和磁束密度 10만 G(가우스)를 실현하여 고화질을 겨냥했는데, 최근은 그 이상의 레벨의 Head를 개발하여 주력제품에 채용하였다.

한편 Sharp는 2년전에 3배 Mode 19미크론 Head를 개발하여 대응했는데, 그를 위하여 아몰퍼스 또는 센더스트로 소재를 변경함과 함께 眞空蒸着加工에 의한 薄膜 Head를 개발하였다. 최근의 신제품에는 표준 Mode用으로 10층, 3배 Mode로 4층의 薄膜積層의 센더스트 Head를 개발하여, 19미크론, 57미크론 Head를 실현하고 있다.

동일한 센더스트 Head에서는 日電 HE가 11층에서 58미크론의 표준 Mode Head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日本 Victor는 單結晶 Ferrite와 多結晶 Ferrite를 熱間加工한 接合型 Ferrite를 개발하였다. Back Core에 多結晶을 사용하여 單結晶, 多結晶 각기 장점을 활용한 Head로 개발 하였다.

이것에 대하여 東芝는 질코니움 아몰퍼스 헤드材를 개발하였다. 15,000가우스의 飽和磁束密度를 갖는 것으로 신재료로써 주목된다.

三菱電機에서도 3배 Mode의 녹화·재생을 향상시킨 High Power Just 4Head를 신제품에

채용하였다. 현재까지의 Just Track Head를 材料, 工法 등 종합적으로 개선, 振動 Noise의 저감을 도모함과 함께 高域에서의 출력특성을 향상시켰다.

각사의 新Head 개발은 고평화磁束密度, 高透磁率을 가지며, 녹화·재생효율을 상승시킴과 함께 화면의 흔들림을 일으키는 摺動 Noise를 감소시키는 것 외에 데이터와의 마찰에 의한 Head 摩耗를 적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일본, BS, S-VHS, 디지털음성 제품화 가속

BS의 디지털 음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VTR 음성의 디지털화가 급후 보려화될 것으로 보여 각사의 상품화의 동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사의 선봉에 서서 日本Victor는 이번 12월에 발매할 계획이다. VHS테크로 디지털 음성 탑재 VTR의 상품화를 구체화한 것은 日立이 두번째이다.

日立은 지난 10월의 일본전자쇼에서 공개한 디지털 음성탑재의 BS튜너 내장 S-VHS를 내년 1월에 발매하기로 결정하였다.

거치형VTR은 보급률이 80%대에 올라 대체 수요, 이중구매 등 "2次 需要" 주체의 시장구조가 되고 있는데, 신규수요의 감소가 전체의 출하로 연결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사 모두 종전에는 없던 기능 탑재로 수요촉진을 겨냥하고 있다.

VHS 개발메이커인 日本Victor는 VHS개발 15주년을 기회로 디지털 음성탑재의 S-VHS 테크를 타사에 선행하여 상품화, 이번 12월에 발매를 단행할 계획이다.

## 松下, 차세대 디지털 오디오기기 개발

松下電器는 차세대 디지털 오디오 디스크로써 현행의 CD와 호환성을 물론 양면 재생 가능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표명하였다.

松下電器는 차세대 Digital Audio System으로 써 네덜란드의 Philips社와 공동으로 磁氣테이프 미디어에 의한 DCC(Digital Compact Cassette)를 내년 봄에는 자사에서 하드, 소프트를 상품화할 계획을 표명하였다.

한편 디스크 미디어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현행의 CD와의 호환성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Sony가 제안하고 있는 MD와는 다른 미디어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하였다. 同미디어는 MD가 단면 녹음재생형인데 대하여 양면녹음재생형이며, 또한 MD가 광자기 디스크인데 대하여 상변화형의 소지가능 광디스크를 이용할 생각이다. 단 업계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Sony의 MD와 재생면에서는 호환성을 갖게 할 방침인데, 이 면에서는 Sony측과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다.

### 東芝, 美社와 MCA대응 Mpu 周邊 LSI

東芝는 21일 퍼스컴 주변기기와의 고속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마이크로 채널 아키텍처(MCA) 대응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용 주변LSI를 미국 마이크랄社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발표하였다. Intel社製 32bit 마이크로 프로세서 80486/386/386SX에 대응한 주변LSI 세트로서 東芝가 생산, 판매를 마이크랄社가 BIOS의 판매를 각각 상당한다.

Set의 샘플가격은 80486/386/386용dl 3aks 3,000원~4만 9,000원, 386SX用이 1만 3,000원(모두 1,000Set 구입시).

양사는 MCA 대응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용 주변LSI의 공동개발에 이전부터 대응하고 있는

데, 금년 7우러부터 80486 주변LSI의 양산을 개시하였다.

### 產軍複合體制에서 民需企業 獨立을

訪蘇중인 中尾通產相은 10월 21일 軍需産業을 民需産業으로 전환(軍民轉換)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通產省과 蘇聯東歐貿易會가 금년 7월에 소련에 파견한 조사단의 보고에 기인한 것인데, ① 軍需와 民需産業이 연결된 產軍複合體制로부터의 民需기업의 독립 ② 시장경제 도입을 위한 원재료시장의 정비 ③ 군수에서민수 기업으로의 인재이동의 촉진 등을 제안,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산업정책을 조급히 수립할 수 있도록 소련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통산성은 이 전환 프로그램이 궤도에 오르면 소련의 경제성장력은 상승하여 서구 선진국의 지원부담도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 금후 일본 등이 실시할 예정인 기술지원의 효과도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 전환대상이 되는 기업의 책무의 일부 소멸 등 전후의 부흥과정에서 일본정부가 도입한 특별한 償却措置가 필요불가결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련은 1987년에 軍民전환계획을 작성했는데, 예산부족도 더해져 성공하지 못했다.

TV는 100%, 냉장고는 98%(89년 실적)가 軍需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시장원리가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생산이 계속되고 있어, 현재 새로이 軍民轉換法이 책정중이다.